인생이 삶인가? 술주정인가?

(이사야 28:1~29)

1.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2.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7.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8.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이 삶인가? 술주정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인생이 삶인가? 술주정인가?'
바로 며칠 전에 봉화에서 엽총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면사무소 직원 두 사람이 죽고 스님이 다치셨습니다. 귀농한 70세 노인이 몇 년 동안 물 때문에 스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진정을 여러 번 냈는데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두드러지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술주정입니다. 몸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취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술에 취하면 살인사건 같은 범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발효와 썩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발효나 썩음은 마찬가지로 유기물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사람에게 이롭게 분해되면 발효가 되고 해롭게 분해되면 썩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서는 발효의 이로움은 없습니다. 썩음이 존재할 뿐입니다.
창조 때로 돌아가 보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청결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청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들

어오면 청결은 사라지고 더러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자리로 지음 받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이 담기면 부패가 발생합니다. 무엇을 담든지 결국 썩음이나 발효가 진행되고, 마음에 담은 그것이 술이 되어서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술주정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음은 자녀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 마음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로 부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를 담은 내 마음이 부패하고 발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담겨 발효된 자녀는 술로 바뀌고 그 술에 내 마음이 취합니다.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녀에게 조언을 하고 자녀를 위해 애를 쓰더라도 다 술주정에 불과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술주정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하지만 그 마음에 승진이 담기게 되면 마음에서 부패가 발생합니다. 승진이 발효되면서 승진이라는 술이 생겨나고, 직장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술주정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승진을 위해서 일로매진하고 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술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최초의 삶의 터전이었던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곧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은 곧 마음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보면서 판단하지 말아보세요.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으면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마음에 담기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주실 때에는 판단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삶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에 계획하셨던 진정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몸으로 접하는 세상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에 들여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보전함으로써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생각과 활동을 장갑삼아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삶이었습니다.

24~27장까지는 온 세상의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의 과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종말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피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안정감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감을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쁨을 찾으려하고 안정감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현실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현실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설 속에서나 교리 속에 계신 분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사실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이름은 일반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격하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자전에서처럼 소리 하나 없이 바람 한 점 없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기쁠 수 있다, 건강하면 기쁠 수 있다, 연금이 있어야 안정된다, 직장이 있어야 안정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기쁨과 안정감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삭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선민의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는 모두 선민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통해 이들 선민을 바라보지만 선민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실망합니다. 이것을 술에 취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1~2절은 북 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7절부터는 남 왕국 유다에 대한 경고로써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온 후에, 중간부터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들을 술에 취한 것으로 비유한 것은 육체적으로 그들이 술에 취해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북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며 여러 가지 죄악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술에 취했다는 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적용시켜 보았을 때에 이방나라 백성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영적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술에 취한 것으로써 비유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영적으로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술 취함'이라는 기준을 굳이 선민들에게는 적용한 것일까요?

12절을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하였습니다.

'곤비한 자'는 지치고 피곤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안식과 상쾌함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에 취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 정의가 나타납니다. '어떤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된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마음이 쏠려 넋

을 빼앗기다'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나 물건에 시달려 얼이 빠지다시피 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 번째의 뜻입니다. 시달려서 지친 상태를 취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인 마음에 세상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8~20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에 돈을 담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돈에 의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들여놓은 결과 더러움이 발생하고 그 결과 썩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썩게 된 돈은 취하게 하는 술이 되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내용이 술주정을 부리는 것이 되어버리기에 지칩니다. 이렇게 지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만족과 평강인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선민에게 허락하신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은 인간의 마음을 외형화 시켜놓은 구조입니다. 우리 마음도 지성소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돈을 담았다면 마음의 지성소는 썩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떡상이 만족을 상징하는 것처럼 돈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또 등대는 판단을 상징하는 것처럼 돈을 얻기 위한 판단을 하려합니다. 또 분향단이 기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지치게 됩니다.
성전의 번제단이 이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세상 것들이 썩어서 술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성전의 번제단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전의 상번제를 생각하며 나의 마음을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식의 길입니다.
이 과정 없이 마음에 직장의 승진을 들여놓습니다. 승진을 위한 삶에는 스트레스 밖에 남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술주정에 불과합니다. 마음에 직장이 들어와서 썩어서 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직장이 마음에 들어오면 얼른 상번제를 떠올리며 어린양과 함께 마음을 죽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죽으면 마음은 하나님의 공간으로 비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련이나 결심만으로 마음을 비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설령 마음을 비웠어도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의 번제단을 통한 죽음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곳이 성전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선민에게는 오직 성전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성전에 드나들면서 그 의미를 왜곡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돈이 들어오면 돈이 썩어서 술이 됩니다. 술에 취한 마음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술주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성전에 와서 양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선민들도 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뇌물로 바치며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술주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예를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외의 다른 것이 담겨 있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오히려 더 썩어서 마음을 더 취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형통이나 건강 문제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마음은 폭탄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음 한쪽에는 자녀가 들어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건강과 사업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 마음은 더 썩어버립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목회와 부흥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얼핏 정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를 타당하고 옳은 것으로만 여깁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마음에 담는 모든 것은 썩어서 더러움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 모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나라’라는 술에 취한 술주정이고, 건강을 위한 기도도 ‘건강’이라는 술에 취한 술주정입니다. 배우자를 보고 이야기를 해도 술주정, 직장에 나가도 술주정, 공부를 해서 일등을 해도 술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에덴에서 살기 위한 조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삶이 에덴으로 유지되는 조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따먹는 것입니다. 쇠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소가 죽어야만 합니다. 다른 모든 음식들도 그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양식이 됩니다. 또한 나의 죽음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세상을 들여놓은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더러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징어 볶음을 먹다가 옷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오징어 볶음은 입에 들어가는 깨끗한 음식이고 옷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옷에 묻는 순간 더러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온 것들은 모두 더러움이 되고 반드시 썩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똑같은 현상을 '취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민에게만 안식과 상쾌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누리면서 상쾌하게 사는 상태와 비교해보면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움을 벗고 안식과 상쾌함을 얻을 곳으로 선민들에게는 성전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허락 받지 못한 자들은 애초에 더 나은 상태가 없기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을 허락 받은 선민들이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술주정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술주정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 교통하시는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만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팔자를 타고 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돈이 있어야 만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해야 기쁘리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목회가 부흥해야 기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기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또 그 결과로 안정감의 토대를 세상에서 찾고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교리로 인정은 하지만 내 마음에서 현실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썩으면서 술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술주정이 아닌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직장 돈 애인 건강 등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세상 술에 취한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안식과 만족이 주어지므로 상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몸으로 만나는 일들에 대해 나를 장갑삼아 그 뜻을 펼쳐나가실 것입니

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말과 몸을 장갑 삼으셔서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인간의 삶입니다. 또한 이것이 술에 취하지 않은 삶을 사는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안식과 상쾌함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러한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리인 마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장갑삼아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 일이 하루 종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